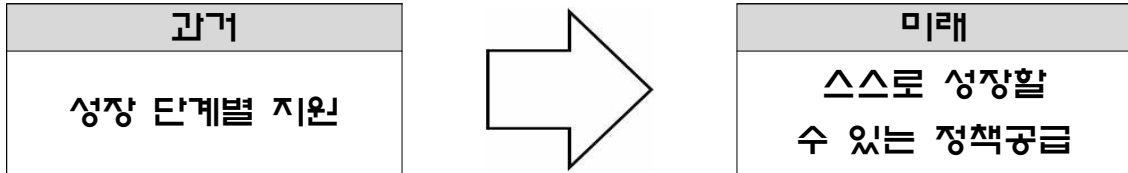


1 창업과 도전을 보장하는 기업생태계

1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대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네이버 등은 중견기업 단계에서 정책에 의해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에서 성공함(기업가정신과 교육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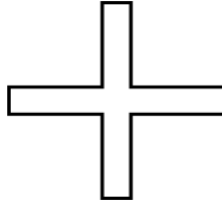
2 벤처생태계의 문제점

구 분	문제점
창업단계 문제점	<p>① 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동기가 82.2% - 자아실현이나 아이디어 및 개념의 사업화 동기는 각각 18.8%와 3.0%로 낮음 - 창업시 주요 장애요인은 자금확보의 어려움이 52.7%로 가장 많았고,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32.0%), 경제활동문제(28.0%),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18.8%) 순 <p>② 올바른 창업교육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의 84.0%가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p>③ 개념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기반 취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 조달방법의 경우 96.1%가 자기자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캐피탈이나 엔젤투자를 통한 조달은 전체 응답의 0.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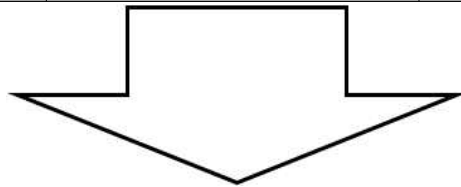
성장단계 문제점	<p>① 경제규모보다 적은 벤처생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4년 12월 현재 904개로 전국대비 3.41%로 전국 9위를 기록 <p>② 미성숙 기업이 많고 대부분 제조업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및 초기성장기업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 <p>③ 자금 및 성장을 위한 공간의 애로가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벤처기업들의 64.8%가 자금확보에 애로 - 벤처투자를 받은 경험이 3.8%에 불과 - 사업화단계에서 저렴한 입주 공간 부족
----------	--

③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도전부터 사업화까지 창조기업 창업 인프라 확대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 함양	창업교육을 통한 올바른 창업유도	도전을 위한 사업화 지원강화



벤처 인큐베이터부터 세계 일류기업까지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전략 ①	전략 ②	전략 ③
제조업기반에서 지식기반 벤처 생태계로 조성	자금생태계 조성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벤처투자조합 운영)	스타기업(1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효과 ①	효과 ②	효과 ③
신산업 창출을 통해 대기업 의존경제 탈피	건실한 벤처생태계 조성	신성장동력 역할 수행

벤처기업인 의견수렴	
①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등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지역에서 이용하기 어려움 ② 회계, 노무, 마케팅, 인력수급 등 경영컨설팅 취약 ③ 해외시장 진출의 노하우 부족 ④ 사업화단계에서 저렴한 입주 공간 부족	

1. 창조기업 생태계 육성의 필요성

- 충남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왔던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득의 역외유출, 분공장 논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
- 충남 1위 기업의 2010년 총 부가가치는 7.6조로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5위 기업까지가 충남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0.7%를 차지

<표 3> 시도별 기업순위별 부가가치 비중

(단위: %)

	1위 기업	5위 기업까지	10위 기업까지	20위 기업까지
충남	15.0	40.7	56.6	63.8
서울	6.6	13.8	19.0	26.7
부산	8.0	21.3	27.5	33.2
대구	2.3	7.6	11.9	18.7
인천	8.3	16.8	20.2	25.1
광주	26.3	55.5	65.4	70.4
대전	5.0	19.6	33.1	48.7
울산	29.4	55.6	61.3	69.3
경기	13.3	30.6	37.4	41.1
강원	5.3	20.9	31.9	43.7
충북	11.3	20.5	26.8	34.9
전북	10.1	30.2	38.2	48.5
전남	22.3	56.8	67.4	78.2
경북	23.1	44.1	54.1	60.4
경남	7.3	26.1	36.1	43.6
제주	4.7	17.8	27.0	40.7

자료: 2010년 경제총조사

- 대기업은 수많은 하청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1위 기업이 몰락은 충남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임
- 따라서 충남의 허리를 거뜰히 지탱하고 지역의 혁신주체가 될 창조기업 생태계 육성이 시급

2. 현황 및 문제점 파악

1) 창업 시 문제점

①	②	③
도전정신 및 사업화 동기 부족	올바른 창업교육 부재	창업자금 마련 어려움

□ 도전정신 및 동기의 부족

□ 20대 조차 자아실현이나 아이디어 및 개념의 사업화 동기가 매우 부족

<표 4> 창업기업의 창업동기

(단위: %)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동기	82.2	76.7	73.5	80.3	85.7	86.9
자아실현동기	18.8	28.2	29.6	21.7	14.0	12.4
사회적동기	3.4	0.0	3.4	3.7	3.0	3.8
아이디어나 개념의 사업화동기	3.0	7.8	5.4	3.4	2.1	1.5
경제적환경동기	33.4	40.7	32.6	33.2	34.8	29.8

자료: 통계청/koses/창업기업실태조사(2013)

주: 복수응답

○ 우리나라 창업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동기가 82.2%로 나타났으며, 자아실현이나 아이디어 및 개념의 사업화 동기는 각각 18.8%와 3.0%로 낮은 편

- 20대 창업의 경우도 자아실현 동기나 아이디어 및 개념의 사업화 동기가 각각 28.2%와 7.8%로 다소 높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충청권 1인창조기업의 경우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강원/제주를 제외하면 최하위(1인창조기업 실태조사, 2013)

- 서울(6.1%), 경인권(9.8%), 충청권(4.7%), 호남권(7.8%), 영남권(4.7%), 강원/제주(2.9%)

②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큼

□ 20대의 경우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크게 나타남

<표 5> 창업기업의 창업시 장애요인

(단위: %)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부재	5.6	6.3	4.4	5.5	6.0	5.6
자금확보의 어려움	52.7	46.3	62.5	57.7	47.6	44.4
지식,능력,경험의부족	18.8	24.7	18.7	20.5	17.2	18.9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32.0	41.7	32.2	32.6	31.4	31.0
부정적 사회 분위기	2.1	4.0	2.7	1.6	2.3	2.0
경제활동문제	28.0	16.6	22.5	22.3	34.1	32.3
기존직업활동제한	0.3	0.0	0.0	0.4	0.4	0.1
지인의만류	1.1	0.0	1.8	1.1	0.9	1.3
기타	11.7	7.7	8.9	12.2	12.2	12.6

자료: 통계청/koses/창업기업실태조사(2013)

주: 복수응답

○ 창업시 주요 장애요인은 자금확보의 어려움이 52.7%로 가장 많았고,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32.0%), 경제활동문제(28.0%), 지식, 능력, 경험의 부족(18.8%) 순이었음

- 특히 20대 창업의 경우도 자금확보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이 41.7%에 달해 첫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남

③ 이와 같은 이유는 올바른 창업교육의 부재

□ 20대의 경우는 87.8%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표 6> 창업교육 경험

(단위: %)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있음	16.0	12.2	16.2	14.2	19.2	11.7
없음	84.0	87.8	83.8	85.8	80.8	88.3

자료: 통계청/koses/창업기업실태조사(2013)

주: 복수응답

- 창업기업의 84.0%가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나타남
- 20대의 경우는 87.8%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4] 창업자금도 대부분 자기자본이며, 특히 엔젤투자의 비중이 매우 낮음

<표 7> 창업당시 창업자금 조달방법

(단위: %)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정부금융	6.9	6.4	9.1	8.6	6.2	2.5
민간금융	16.1	11.8	19.4	19.6	13.8	10.7
캐피탈·엔젤투자	0.4	0.0	0.4	0.6	0.2	0.3
자기자본	96.1	90.2	94.2	96.2	96.5	97.7
기타	1.8	4.9	2.8	1.3	1.8	1.6

자료: 통계청/koses/창업기업실태조사(2013)

주: 복수응답

- 창업자금 조달방법의 경우 96.1%가 자기자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캐피탈이나 엔젤투자를 통한 조달은 전체 응답의 0.4%에 불과
- 특히 20대의 경우는 캐피탈이나 엔젤투자를 통한 조달이 전무

2) 충남 벤처 생태계 현황 및 문제점

①	②	③
경제규모보다 적은 벤처생태계	미성숙 기업이 많고 대부분 제조업기반	자금 분야의 애로가 높음

1] 경제규모(3위)에 비해 적은 벤처기업수

- 충남지역의 벤처기업은 2014년 12월 현재 904개로 전국대비 3.41%로 전국 9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지역총생산이 전국 3위이고 중소제조업 종사자수가 전국 4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여 벤처기업의 지역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 평가됨

<표 9> 전국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 임광업	기타	합계
서울	1,978	3,109	121	124	230	3	1,068	6,633
부산	1,670	206	13	39	20	2	200	2,150
울산	311	32	0	9	2	1	45	400
대구	1,351	140	6	18	22	1	58	1,596
경북	1,324	48	15	13	5	4	59	1,468
광주	545	77	6	3	4	0	51	686
전남	426	28	6	16	3	1	56	536
대전	731	206	21	18	4	1	88	1,069
충남	904	34	8	6	4	5	59	1,020
경기	7,609	750	88	118	86	16	539	9,206
인천	1,228	55	6	11	9	1	60	1,370
강원	378	55	12	19	2	3	47	516
충북	615	41	11	12	4	2	27	712
전북	526	50	8	15	2	3	57	661
경남	1,579	54	2	9	4	2	85	1,735
제주	54	19	2	1	2	3	15	96
세종	52	2	0	1	0	0	1	56
계	21,281	4,906	325	432	403	48	2,515	29,910

자료: 벤처기업협회 통계자료

② 초기단계 및 제조업기반 벤처기업수가 많음

- 벤처기업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충남벤처기업은 창업 및 초기성장기업이 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35.4%를 차지(김흥기, 2014)

– 충남벤처기업은 창업기가 10.1%, 초기성장기 31.6%

<표 10> 충남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단위: %)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10.1	31.6	35.4	20.3	2.5

자료: 김흥기(2014), p42 그림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으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기타, 그리고 정보처리S/W등의 순(김홍기, 2014)
- 제조업기반에서 탈피하여 정보처리S/W나 연구개발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 벤처기업육성이 필요

<표 11> 충남지역 업종별 벤처기업수

(단위: %)

제조업	정보처리 S/W	건설운수	연구개발 서비스	도소매업	농림업	기타
88.4	2.9	0.5	1.4	0.1	0.0	0.0

자료: 김홍기(2014), p43 그림

③ 기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금애로가 가장 높음

<표 12> 충남벤처기업의 자금애로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어려움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0.0	5.9	29.4	32.4	32.4

자료: 김홍기(2014), p42 그림

- 충남벤처기업들은 자금애로사항에 대해 64.8%가 그렇다라고 응답
- 또한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53%가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에서 조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정부정책자금 조달은 47%에 불과
- 전국평균 은행 등 일반금융기관 조달이 26.0%, 정부정책자금 조달이 61.2%

<표 13> 충남벤처기업의 투자 경험 여부

(단위: %)

경험 없음	투자유치 실패	진행중	투자 받음
94.1%	0.0%	2.9%	2.9%

자료: 김홍기(2014), p42 그림

- 벤처투자를 받은 경험 또한 3.8%로 전국 평균 6.5%에 비해 매우 낮음

3) 도내 벤처기업인 의견수렴(도청 간담회자료)

① 도의 정책적 의지필요

-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창업열기 부족
-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기존 정책(자금, 경영)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려움
- ⇒ 도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의지가 중요

②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중소기업 경영자금, 기술신보 등이 있으나 융자에 필요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벤처인들이 활용하는데 곤란
- 벤처캐피탈, 엔젤펀드 등 벤처투자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은 한계
- ⇒ 지역 벤처캐피탈 설립이나 벤처투자조합, 엔젤펀드 등 운영

③ 경영컨설팅 및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필요

- 기업이 성장하면서 회계, 노무, 마케팅, 인력수급 등 경영애로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함
-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싶으나 경험과 자금 부족 등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함
- ⇒ 기술사업화 지원 외에 경영학과 교수의 경영컨설팅제도 운영과도의 해외 마케팅 정책에 벤처기업을 포함

④ 창업보육 졸업기업을 위한 별도의 입주 공간 필요

-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이 부족하고 사업화 단계에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희망자 입주에 제약
- 창업보육센터 입주 후 3년이 경과된 기업(졸업기업)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등 저렴한 입주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정착 저조
 - * '13년 졸업기업(393개) 중 생존기업 195개(49.6%), 생존기업 중 지역정착 기업은 125개(64%)
- ⇒ 도 차원의 벤처기업 입주공간과 우수 R&D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센터설치운영 필요

3. 충남도 지원정책

① 창업 지원

- (충남 신기술창업보육센터) '99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14년에 1,600백만원 (국비 712, 도비 500, 기타 388) 지원
 - * '14. 3분기, 18개 센터에 보육실 601개, 입주기업 360개
- (청년CEO 500 프로젝트) 500개의 청년창업을 목표로 창업교육, 창업활동비 및 창업공간 등 지원
 - * '14년 도비 1,000백만원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14. 1월에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소, 4년간 120개 청년 창업을 목표로 창업교육 및 창업공간 등 지원
 - * '14년 3,650백만원(국비 3,500, 도비 150) 지원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4. 9월 현재 37개 기업(경제진흥원 24, 충남TP 13) 입주, 창업공간 등 지원
 - * '14년 국비 275백만원(경제진흥원 145, TP 130) 지원

② 자금 지원

- (벤처투자조합) '00년부터 총 6개의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여 총 198억원을 출연
 - * '14. 9월말 현재 2개의 투자조합을 운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자금) 업체당 23억원(시설자금 20, 운전자금 3) 이내에서 융자 지원

③ 마케팅 및 R&D 지원

-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운영(년 1회) 및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판로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을 통해 R&D 지원
 - * '14년 8,320백만원(국비 4,220, 도비 2,025, 기타 2,075)

4. 정책방향 및 전략

1) 정책방향

① 도전부터 사업화까지 창조기업 창업 인프라 확대

□ 전략① 창업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정신 함양

- 기초적인 수준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춘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청소년들의 감춰진 기업가정신 발굴이 핵심

□ 전략② 창업교육을 통한 올바른 창업유도

- 실질적인 벤처창업교육 필요(프랑스 창업 사관학교 '에콜42')
- 생존경쟁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업의 성공확률을 높임

□ 전략③ 도전을 위한 사업화 지원 강화

- 창업·초기기업 사업화 지원(콘텐츠·SW 관련 기업 우대)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및 인증 획득, 마케팅, 컨설팅, 인력양성, 네트워킹 등 지원
-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운영
 - 50억원 규모의 지역 엔젤펀드 조성

② 벤처 인큐베이터부터 세계 일류기업까지 육성시스템 구축

□ 전략① 제조업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벤처 생태계 변화

- 지식기반 벤처 전용공간 마련
 - 벤처창업 창조공간(Creative Space) 조성시 창업 초기단계 지식기반 벤처(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등)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식기반 벤처전문 우수 컨설팅 인력을 확보하여 신생기업 컨설팅 강화

□ 전략②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 벤처투자조합 지속 운영

- 현재 운영중인 경기충남상생펀드조합이 '15.7월 종료시 충남TP 출자액 50억원 (道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회수하여 지역벤처투자조합 추가 결성에 재출자

○ 지역 벤처캐피탈 설립 지원

-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수익창출을 최종 목표로 설립
- 대기업, 은행권 등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道에서는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간접적 지원

□ 전략③ 스타기업(1류기업) 육성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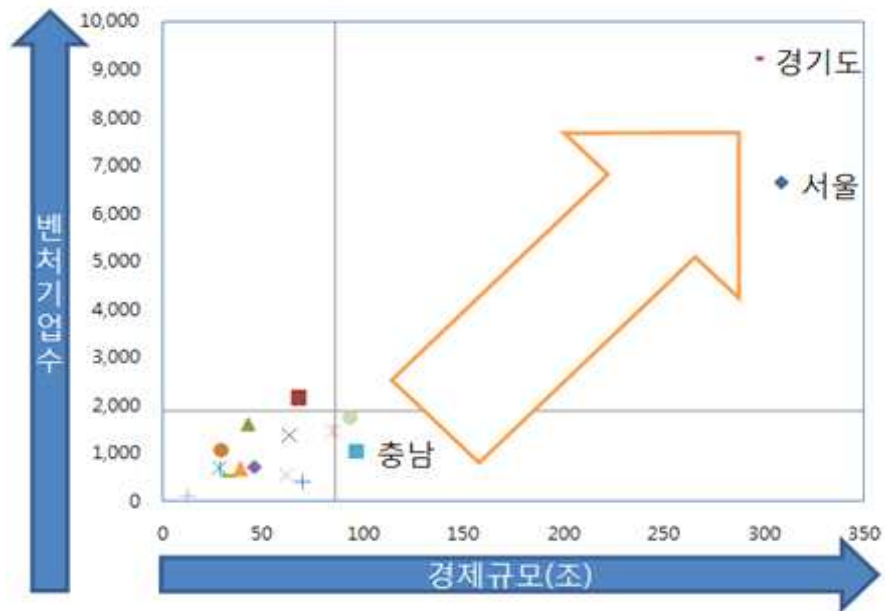
○ 벤처기업인 전용 입주공간 확보

- 벤처창업 창조공간(Creative Space) 조성하여 창업 초기단계부터성장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정착사각지대에 있는 벤처기업의 지속성장 공간 마련
- * Creative Space : 벤처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공간(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

○ 마케팅 지원 강화

- 도내 벤처기업 공동브랜드 제작을 통해 마케팅 지원
- 충청권 벤처·중소기업 박람회를 통해 지역내 우수기술 제품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등 지원
- 벤처·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포장 등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벤처기업 참여 보장

부록: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방향



[그림 2] 바람직한 벤처기업 육성 방향

② 주요사업 브레인스토밍

1. 초기교육: 무한도전 프리스쿨(preschool)

■ 네이밍의 뜻

- 무한도전 프리스쿨은 도전에 두려움이 많은 젊은 청년들(대학생+대학졸업생)에게 기업가 정신함양과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창업교육 전문센터이며, 청년들에게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무한도전이라는 네이밍을 붙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부분의 창업이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이며, 젊은 청년들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절차 등을 몰라 창업의 어려움을 호소
- 도내에 다양한 창업교육기관들(신기술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이 있으나, 기업가 정신함양과 창업에 대한 교육 보다는 실제 사업화에 초점이 있음
- 따라서 보다 기초적인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함양과 창업교육에 특화된 센터의 운영이 필요
- 청년들이 일련의 창업과정을 사전에 몸소 경험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주도

■ 무한도전 프리스쿨(안)

무한도전 프리스쿨	기존의 창업교육 기관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기초교육에 초점 (기본창업과정→심화창업과정→심화육성과정 교육)	교육 및 실전 사업화에 초점

- 충남에서 계획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에 기업가 정신 함양과 기초창업교육만을 책임지는 별도의 무한도전 프리스쿨을 둠
- 학벌 및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전정신과 열정을 갖춘 기업가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 ① 창업기본과정(기업가정신의 이해와 비즈니스모델 설계)
 - ② 심화창업과정(시뮬레이션, 사업계획서 작성, 고객이해, 시장조사, 시제품제작 등)
 - ③ 심화육성과정(시제품·UCC 제작, 시제품 보완 및 멘토링)

2. 실질교육: IT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기관 "3S IT School"

■ 네이밍의 뜻

- 3S(Smart Skill for Survival)는 생존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출발하자는 젊은 청년들의 희망을 담고 있음(부가적으로는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Speed, Strength, Stamina를 의미)
- 따라서 충남 "3S IT School"의 차별화는 기존 청년창업기관보다는 실습과 경쟁을 통한 IT 전문 양성기관임

■ 추진배경

- 선진국을 중심으로 IT분야 전문 양성기관(프랑스 에콜42 등)을 통한 스타트업 기업이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충남은 상대적으로 지식기반 벤처생태계가 취약
- 이에 미래 충남을 이끌 IT분야 맞춤형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 "3S IT School" 추진(안)

- 충남내 대기업과 도비출연을 통해 IT 맞춤형 인재 양성
- ※ 충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이원화하여 IT에 특화하고 IT관련 대기업(네이버, 구글, 다음 등)의 지원과 연계를 중시

3. 전용입주공간: 벤처 크리에이티브 벙커(Creative Bunker)

■ 네이밍의 뜻

- 벤처 크리에이티브 벙커(Creative Bunker)는 창의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risk)가 큰 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충남 벤처인들에게 충청남도에 대한 신뢰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위해 네이밍(naming) 된 벤처전용 입주 공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첨단시설 등 인프라 확대가 시급
-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적 기업육성 공간수요에 대응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을 위해 저렴한 입주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을 유도

졸업기업 → 생존기업 → 지역정착기업(생존기업의 70% 지역정착 유도)

■ 벤처 크리에이티브 벙커 추진(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벤처 크리에이티브 벙커(Creative Bunker) 입주기간	
창업보육기	성장기	성숙기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정주환경시설(교육, 주거, 복지문화 시설, 의료, 공원 등) 조성	

- 500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창업공간 지원
- 회의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및 생산시설 등 안정적 창업활동 지원
- 충남테크노파크 유희부지 또는 벤처축진지구 내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 지역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적 성장이 가능한 창조적 생태계 조성
-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벤처창업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 최대 300억(국비, 도비, 민간 매칭)
- 활용부지: 충남 TP 내 유희부지(5천평 규모) 활용
- 사업규모: 아파트형 공장 500실 규모
- 사업대상: 전국 벤처기업

부록: 경제비전 2030 도지사보고 주요내용

S03. 충청남도 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17

- 창업, 사업화 촉진,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R&D와 기술중심의 접근
 - 지역내 창업과 기술사업화, 기술교류 등을 통한 충남의 차세대 성장주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 기술지주회사(개념) : 기술자산을 매개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경영(기술사업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회사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주요 사업내용

- 산업정책 + 기술개발 + 사업화모델
- 발생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적 기술자본 축적
- 기술이전, Joint Venture, 자회사 설립

● 추진전략

- 충남TP와 충남도 지역대학연합
- 충남도 출연금 지원 (10~20억)
- 지역대학 기술(자금) 출연
- 기 구축된 인프라 연계활용

● 전국 설치 및 운영 현황

- (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협의회
- 28개사 설치 및 운영
- 지역대학공동 3개소(강원, 전북, 대경)



[사례 :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S04. 과학벨트 기능지구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특구

19

- 연구개발 집적지 조성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사업화 촉진
 - 특구 지정 법적 근거 : 지역 산학연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해 국가 성장의 신성장 동력 창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과학벨트 전담기관 지정(과학벨트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및 과학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 과학벨트와 연계한 논의 확대
 - 과학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대신할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대안으로 연구개발특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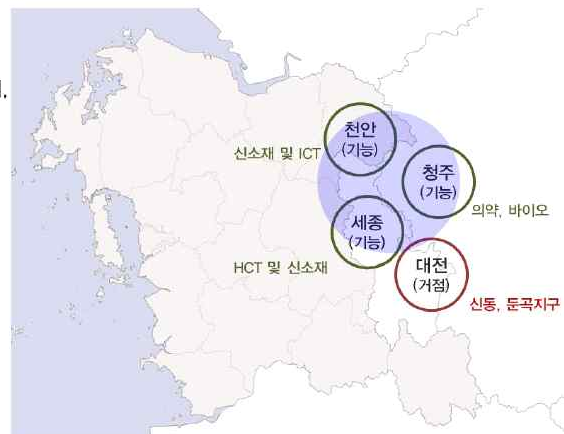
● 주요사업 내용 (특구지정시, 연 150억원 내외 지원)

- 특구조성 : 거점시설 및 사업화지원 시설 조성
- 연구비 지원 : 출연연, 연구소 대상 기술사업화 자금 등
- 입주기업관리 및 네트워크 지원 : 특구입주기업 수요관리, 세제혜택을 위한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

● 특구지정현황(4개소)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 현재 4개소 지정

구분	특구별 특화산업
대덕 (2005)	IT, BT 및 정밀기기 분야 중점지원 및 전국적 기술 확산
광주(2011)	광기반 융복합 분야
대구(2011)	스마트IT 및 의료기기·소재 분야
부산(2012)	조선 해양 플랜트 분야



[충청권 연구개발특구 구상]

● 벤처기업의 지역내 정착과 신수요 창출

-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적 기업육성 공간 수요에 맞춤형 대응
- 충남 미래산업을 이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첨단 시설, 인프라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천안아산 융복합집적지 조성과 연계 벤처 타운 공동 조성
- 충남테크노파크 유희부지 활용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 아파트형 공장 500실 규모 (5천평, 3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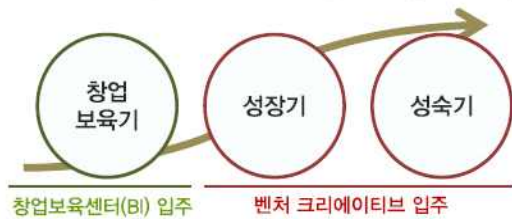


[미국 DNA Alley 사례]

● 추진 전략

- 500실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창업 및 입주공간 조성
- 기업연구소, 기업지원서비스업체 입주 및 유치
- 회의실, 휴게실 등 기업 비즈니스 환경 지원
- 기술지주회사 입지 제공

졸업기업 → 생존기업 → 지역정착기업(70%목표)



● 주요 사례

-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DNA Alley'
 - * 세계 유전자 자본의 수도, 바이오 관련 벤처 집적지
 - * 워싱턴 DC 덜러스 공항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
 - *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센터 : 초기단계의 바이오벤처 50여개 기업 입지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정주환경시설 연계 및 조성
(교육, 주거, 복지문화시설, 의료, 공원 등)

